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경계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보도	2017. 4. 13.(목) 조간	배포	2017. 4. 11.(화)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장준경 국장(3145-7580), 함용일 부국장(3145-7570)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④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마흔 네 번째 금융꿀팁으로,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를 안내하여 드림

<별 첨> 금융꿀팁 200선 - ④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행복해 지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1) 주식투자 초보자인 김성장(48세, 가명)씨는 최근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음. <p>처음에는 매매수수료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투자금액과 매매횟수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던 차에, 지인 한건실(52세, 가명)씨는 본인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를 내고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2) 10년 넘게 주식투자를 하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신용 거래도 자주하는 강투자(38세, 가명)씨. 강씨는 10년 넘게 사용해 온 증권사의 MTS 화면이 눈에 익어 계속 사용하여 왔으나,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너무 높은 거 같아 이자율이 낮은 증권사는 없는 지 찾아보려고 함.
꿀 팁	<p> 주식투자시 수수료와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노하우를 기억하고 활용하세요</p> <div data-bbox="311 1388 1437 1471"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div> <div data-bbox="311 1518 1437 2045"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매수수료 저렴한 증권사 선택 ② 증권사로부터 돈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 비교 ③ 수수료 저렴한 온라인 거래 이용 ④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할인행사 활용 ⑤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 문의 ⑥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 수수료 할인 여부 확인 ⑦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에 주의 </div>

① 매매수수료 저렴한 증권사 선택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원 거래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매매하는 투자자는 우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여 비교·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 매매수수료 비교 공시 : (▶ [여기를 클릭](#))

②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 비교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용자**’라고 하며,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예탁증권담보용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용거래용자**’나 ‘**예탁증권담보용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간별·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따라서 신용거래용자나 예탁증권담보용자를 이용하기 전에 **이자율**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별 ‘**신용거래용자 이자율**’과 ‘**예탁증권담보용자 이자율**’ 역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비교 공시 : (▶ [여기를 클릭](#))

- 예탁증권담보용자 이자율 비교 공시 : (▶ [여기를 클릭](#))

③ 수수료 저렴한 온라인 거래 이용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 (예시) A증권사의 경우 1천만원 거래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0,000원인 반면, HTS로 거래할 경우 1,400원에 불과

또한,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매매방식과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 또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매매수수료 비교 공시 : (▶ [여기를 클릭](#))

④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 할인 행사 활용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개설하는 계좌

따라서, 이러한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 할인행사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⑤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수수료 적용기준 예시>

(단위 : %)

오프라인				온라인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수수료	고객등급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수수료	고객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00만원 ~	0.35	0.30	0.20	150만원 ~	0.1	0.1	0.1
1,200만원 ~	0.30	0.23	0.18	400만원 ~	0.08	0.07	0.06
2,000만원 ~	0.20	0.18	0.15	650만원 ~	0.06	0.05	0.04

※ 예시이며 각 증권사별/기준시점 등에 따라 실제 수수료는 차이가 있음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2017년 2/4분기 중에 추진 할 예정입니다.

⑥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 확인

증권업계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0.1월부터 시각 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 할인여부, 운영방식 및 할인율 등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따라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식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고객센터('붙임' 참조)에 수수료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⑦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에 주의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과당매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시에는 이러한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등)

특히,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인하여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메뉴 클릭

붙임 1 공시정보 사이트 안내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http://dis.kofia.or.kr>)

- 증권사별 매매수수료, 이자율, 예탁금이용료 등을 비교 검색 가능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증권거래 수수료

검색결과: 106 건

회사명	수수료 부과기준	기준일자	거래금액	구분	증권사지점개설개좌			
					오프라인	HTS	ARS	스마트폰
유진투자증권	100만원	2011/11/18	변경전	5,000	2,500	2,000	1,500	
	100만원	2012/10/08	변경후					
	100만원	2012/10/08	변경중					
SK증권	100만원	2009/03/18	변경전					
	100만원	2011/11/18	변경후	5,000	2,500	2,500	500	
	100만원	2011/11/18	변경중					
유안타증권	100만원	2013/06/10	변경전	5,000	2,500	1,970	1,000	
	100만원	2014/07/21	변경후					
	100만원	2014/07/21	변경중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주식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업공시정보 확인 가능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신속하고 투명한 공시! 세계속의 초일류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회사명: [회사명 또는 종목코드를 입력하세요] | 기간: [20160704] - [20170104] | 검색

오늘의 공시 [2017-01-04 15:26] | 오늘의 공시는 30초 단위로 갱신됩니다.

종목	시간	내용
기타법인	15:23	하나금융투자 [기재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
코스닥시장	15:21	코스닥시장 [기재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자율공시)
코스닥시장	15:18	코스닥시장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코스닥시장	15:14	금성테크 파산신청각각
코스닥시장	15:12	금성테크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품문 등 조결과과 공시)
기타법인	15:11	하나은행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시장	15:11	우신시스템 [연장결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기타법인	15:09	신한금융투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모제시판 [2017-01-04 15:26] | 공모제시판은 30초 단위로 갱신됩니다.

종목	시간	내용
기타법인	15:23	하나금융투자 [기재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
코스닥시장	15:21	코스닥시장 [기재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자율공시)
코스닥시장	15:18	코스닥시장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코스닥시장	15:14	금성테크 파산신청각각
코스닥시장	15:12	금성테크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품문 등 조결과과 공시)
기타법인	15:11	하나은행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시장	15:11	우신시스템 [연장결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기타법인	15:09	신한금융투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사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HMC투자증권	☎ 1588-6655
IBK투자증권	☎ 1544-0050 / 1588-0030
KB증권	☎ 1588-6611
NH투자증권	☎ 1544-0000
SK증권	☎ 1599-8245 / 1588-8245
골든브릿지증권	☎ 1566-0900
교보증권	☎ 1544-0900
대신증권	☎ 1588-4488
동부증권	☎ 1588-4200
리딩투자증권	☎ 1544-7004
메리츠종금증권	☎ 1588-3400
미래에셋대우	☎ 1588-6800
바로투자증권	☎ 1600-8515
부국증권	☎ 1588-7744
비엔케이투자증권	☎ 1577-2601
삼성증권	☎ 1588-2323
신영증권	☎ 1588-8588
신한금융투자	☎ 1588-0365
유안타증권	☎ 1588-2600
유진투자증권	☎ 1588-6300
유화증권	☎ 02-566-5522
이베스트투자증권	☎ 1588-2428
케이티비투자증권	☎ 1588-3100
케이프투자증권	☎ 1544-760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02-550-6200
키움증권	☎ 1544-9000
토러스투자증권	☎ 02-709-2300
하나금융투자	☎ 1588-3111
하이투자증권	☎ 1588-7171
한국투자증권	☎ 1544-5000
한양증권	☎ 1588-2145
한화투자증권	☎ 080-851-8282
흥국증권	☎ 02-6742-3600

※ 총 53개 증권사(국내사 34, 외국사 19)중 법인영업만 하는 20개사(국내사 1, 외국사 19)는 제외